

I. 통상현안정보

■ 인도 시장에서의 對중국 경쟁전략 시급하다

- 최근 3년 대인도 수출, 연평균 30%씩 신장
- 핸드폰, 기계류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 시장잠식 가속화
- 인도-중국 FTA 공식검토 착수, 연말까지 구체일정 제시

-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이 인도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음. 최근 중국의 對인도 수출은 수출 증가율이나 금액면에서 우리나라를 훨씬 능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에서 시장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업계의 대응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02~'03 년 인도의 對중국 수입은 28 억불로 對한국 수입 15.2 억불을 훨씬 능가하고 있음. 또한 최근 3 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인도의 對한국 수입이 연평균 14% 증가에 그친 반면 對중국 수입은 연평균 30%로 우리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중국의 인도시장 점유율은 약 5%로 우리의 두 배에 이르고 있고 매년 점유율이 가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인도의 對한국/중국 수입 추이 비교>

(단위 : 백만불, %)

구 분	인도의 對한국 수입			인도의 對중국 수입		
	금액	증감율(%)	시장점유율(%)	금액	증감율(%)	시장점유율(%)
03.4-6 월	460	-	2.7	860	-	5.0
2002-03	1,522	33.4	2.5	2,792	37.1	4.5
2001-02	1,141	27.8	2.2	2,036	35.6	4.0
2000-01	893	-19.1	1.8	1,502	17.2	3.0

(자료원 : 인도 상공부 수입 통계(회계년도 기준임))

- 더욱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들이 경공업 소비재에 그치지 않고 산업 기계류, 무선통신기기, 철강, 인조 직물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에서 시장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임. '02~'03 년 우리의 對인도 10 대 수출품목가운데 선박 등 특수품목을 제외하고 인도의 對한국 및 對중국 수입을 분석해 보면, 자동차부품, 철강, 플라스틱만이 우위에 있을 뿐이고 나머지 품목들은 대부분 열세이거나 대등한 수준에 있음.
- 더욱이 이들 주력품목들에 대해 중국의 시장 잠식이 매년 가속화되고 있음. 우리의 對인도 수출 1 위 품목인 핸드폰의 경우 중국의 對인도 수출은 '00~'01 년 2 백만불에 불과하였으나 '02~'03 년에는 255 백만불로 우리의 對인도 수출 234 백만불을 추월하였음.
- 섬유부문에서 우리의 주력품목인 인조장섬유의 경우도 중국의 對인도 수출은 '00~'01 년 6 백만불에 머물렀으나 '02~'03 년 49 백만불로 우리와 대등한 수준까지 따라왔음. 이는 일반기계류 및 부품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고, 유/무기 화학제품은 이미 우리를 월등히 추월하고 있음.

<2002-03 년 주요 품목별 인도의 對한국/중국 수입 비교>

(단위 : 백만불, %)

품 목	인도의 對한국 수입		인도의 對중국 수입	
	금액	시장점유율(%)	금액	시장점유율(%)
무선통신기기	234	28.7	255	31.3
기계 및 부품	297	5.8	285	5.6
(컴퓨터)	(66)	(8.1)	(84)	(10.4)
플라스틱 및 제품	75	8.3	32	3.5
철강 및 제품	100	6.5	25	1.6
인조 장섬유	51	15.3	49	14.7
유기 화학품	59	2.7	468	21.2
자동차 부품	53	24.0	1.2	0.5
무기 화학품	11	1.0	74	6.4

(자료원 : 인도 상공부 수입 통계(회계년도 기준임))

-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이 인도 시장진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감지되어 시장잠식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더하게 한다. 중국의 Kejian 은 4 월초 인도에 핸드폰을 출시한데 이어 머지 않아 인도에서 직접 생산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또한 세계 5 대 가전메이커인 Haier 사는 조만간 1,200 만불을 투자하여 TV,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인도에서 생산할 것으로 발표하였고, 향후 수년간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여 인도시장 개척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중앙정부 및 주정부 차원의 노력도 크게 강화되고 있음. 중국의 무역진흥기관인 CCPIT 는 지난 3 월말 뭘바이에서 약 200 여개사가 참가하는 중국상품전시회를 개최하여 인도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음.
- 또한 지난해 6 월말 인도 바즈파이 총리의 중국 방문 이후 양국은 FTA 를 통한 교역 확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현재 양국은 공동연구그룹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12 월말까지 공동연구그룹이 이에 대한 추진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임.
- 우리의 對인도 수출은 2003 년 28.5 억불로 전년대비 106% 급증함에 따라 인도는 우리의 제 12 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 그러나 곳곳에서 우리의 주력수출품목에 대한 중국의 시장잠식이 감지되고 있어 우리 수출업계의 보다 체계적인 시장관리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우리의 미래 주력시장에 대한 시장관리 차원에서 한-인도 FTA 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이 보다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임.

(문의처 : 뉴델리무역관 김승호 river0915@hotmail.com)